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추석 명절과 자급자족

일) 4일간 쉬는 날이다. 설날과 추석날은 3일간 쉬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고 송조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추석이 되면 귀향하는 사람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막혀 평소보다 3~4배의 시간을 소비해서 귀향하고 있다.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상의 고향이 농촌이고 농촌에서 자라고 성장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진출해 살고 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래풍습에 의한 추석의 전통 놀이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 농경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조상이며 하느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다.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풍속은 추석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풍요

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 명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 추석날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별초하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다.

자급자족(自給自足)이란 필요한 생필품을 자기가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경사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곡식이나 채소를 가꾸어 식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물물 교환을 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것도 자급자족의 범주에 속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는데 자기 손으로 하면 자급자족인데 남의 손을 빌려서 하고 자기는 딴 일을 해 돈을 벌어서 별초 품삯으로 준다. 자기가 할 일을 남이 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할 일을 남이 했지만, 자기가 번 돈으로 했으니 자급자족이다.

농촌에서는 할 일을 능력에 따라 품바꿈과 품앗이가 있었다. 품바꿈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일을 바꿔하고 돕는 것이며, 품앗이는 서로 협동해서 하기 위해 일을 도와주고 품을 벌어서 혼자 할 일을

서로 도와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급자족을 위한 상부상조의 농촌문화 미덕이다. 따라서 조상을 위한 일은 자급자족과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자손들이 참여해야 한다. 조상에 대한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모자이크한 협동화가 게시판에 붙어있는데 1학년 학생은 자기 그림이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림 자랑을 했다. 반 전체 학생이 협동해 만든 모자이크 그림작품인데 자기가 색종이로 붙인 부분은 꽃밭 귀뚜라미였지만, 자기 그림이라고 자랑했다. 내 고향과 산소가 모자이크한 협동화처럼 나도 참여해 만든 산소며 차례상이며 고향이 돼야 한다. 남이 만든 작품 구경하러 가는 추석 명절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참여한 추석 작품이 돼야 보람 있는 추석 명절 작품이 된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정성껏 했으면 한다. 과일류는 자기가 가꾼 나무에서 수확하고 곡식은 자기가 가꾸어 수확한 햅쌀과 햅 과일이면 자급자족이다. 추석 선물도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의 원칙에 따라 나에게 있는 것을 부담 없이 주고받아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검소하면서도 실속 있고 자랑스러운 명절이 됐으면 한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갑진(甲辰)년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인데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면 추석 연휴는(9월 17일~9월 18

독자기고

추석절 별초·성묘시, 벌 쏘임 사고 주의

이 개 현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 소방경

차지했고, 바다/강/산/논·밭이 24.8%(697명)로 나타났다.

벌은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 주택가 등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벌 때를 자극할 수가 있어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향수 등을 자제하고 밝은색 계열 옷과 췌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며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벌과 접촉 시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30m 이상(최대한 멀리) 이탈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 행동 요령으로는 카드 등을 이용 신속히 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특히,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벌 쏘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길어지는 폭염에 말벌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해마다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연평균 6,213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2,815건으로 예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79.8%가 7월~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18일 기준 8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벌 쏘임 환자 사고 발생 장소는 37.3%인 1,049명이 집에서 발생해 큰 비중을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발행·편집인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 사장 기백관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